

2025년 12월 7일 주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교리주간)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 교회가 정한 인권 주일이고 사회 교리 주간
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
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 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
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입당성가 : 97번 '구원의 메시아'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11,1-10

화답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15,4-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
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12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 성가 :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 우리는 성체가 주는 은총의 힘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2025년 12월 14일 주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주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입당성가 :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35,1-6ㄴ.10

화답송 :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 2 독서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5,7-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1,2-11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봅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2025년 12월 21일 주일 대림 제4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초 네 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요셉처럼 주님께 순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인간의 상식보다 하느님의 뜻에 두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입당성가 :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7,10-14

화답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시작입니다. 1,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24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 성가 :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 후 묵상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오래전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한가운데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미사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순간이며, 우리가 모신 성체 또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표징입니다.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88번 ‘임하소서 구제주여’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성탄 밤 미사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 참으로 기쁜 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함께 기뻐하며 노래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입당성가 : 99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6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4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05번 ‘사랑의 아기 예수’

영성체 성가 : 98번 ‘이사야 말씀하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축복이 되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사는 우리도 천상의 양식을 받아 모시고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찬미하며 이 거룩한 밤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03번 ‘오늘 아기 예수’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 낮 미사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강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오늘을 경축합니다.

입당성가 :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7-10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1-18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0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영성체 성가 : 105번 ‘사랑의 오소서 주 예수여’

믿는 이들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영광을 보고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체 안에서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성체 안에 담긴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07번 ‘천사의 찬송’

2025년 12월 28일 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한 해체된 가정과 위기를 겪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입당성가 : 114번 '나자렛 성가정'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13-15.19-23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4번 ‘주여 대령했나이다’

영성체 성가 : 165번 ‘주의 잔치’

영성체 후 묵상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3번 ‘성요셉과 성마리아’